

R=VD 윤리와사상 자작 모의고사 해설

모든 제시문과 선지는 기출, 교과서, EBS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였으며 서술방식이나 약간의 문장 변형을 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거가 있는 선지들입니다. 최대한 헛갈릴만한 선지나 EBS에선 지나쳤을만한 선지들을 주로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제시문은 기출선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EBS에 실려 있고 분석을 했을 때 누구인지 분별이 가능한 것,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제시문을 이용하였습니다. 등급컷은 46~47점을 1등급 기준으로 삼아 만든 것이고, 답을 고르기에는 별 무리가 없지만 함정 선지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약간의 변별력을 주었습니다. 어렵게 만들려면 정답 선지를 꼬아서 내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수능이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굳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였고 정답을 찾은 후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지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하는 취지로 답은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받았고 복수정답의 기초가 보이는 문제들은 모두 명료하게 바꾸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해설지가 없으면 이해가 안가는 문제들이나 출처가 의심되는 문제들 때문에 자작 모의고사의 특성 상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 선지들 위주로 해설지를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 바랍니다. 출처도 원한다면 기억이 나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문제라도 얻어가는 문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자(감사합니다ㅠㅠ)

Orbi 성공해야하는이유, 시발점, 명학씨..., 멤멤멤멤
추가 익명의 15명 정도가 문제 풀이에 참여해주셨습니다.

45541 31322 34241 55245

답 개수도 최대한 맞춰보았습니다ㅎㅎㅎ...

1. ④

이 지문은 ebs 영어지문을 연계한 제시문인데 혹시 알아채신 분 계실지...

2. ⑤

답은 도가, 을은 순자이다.

오답설명 ① 도가는 자연이 무질서가 아닌 도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③ 순자는 차등분배를 주장하였다. 균등분배는 공자에 대한 설명이다.

3. ⑤

답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병은 오컴이다.

오답설명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이 결여된 상태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작년 수특에 있었음)

4. ④

답은 흠, 을은 벤담이다.

5. ①

(A) 선종 (B) 집의 (C) 본연지성

오답설명 ② 칸트는 선의지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본다.

6. ③

공자의 신독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설명 ⑤ 도가의 입장이다.

7. ①

답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이다.

오답설명 ② 성리학은 이를 만물의 근본 원리, 기를 만물을 이루는 재료로 본다.

③ 양명학의 입장이 맞다. EBS 선지이며 정확한 해설을 원한다면 수특 38P 5번 참고.

해설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EBS에서 다뤘고

성리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넣어보았음.

추가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수특의 해설지를 발췌하여 적어보았습니다.

나올 선지는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선지가 있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셨으면 하는
취지로 만든 문제이고ㅠㅠ 사실 저도 빼버리고 싶지만 너무 명료하게만 떨어지는 문제들은
이미 기출에 많으므로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성리학으로 오인이 가능한 선지
이기도 하구요. 너무 집요하게 파고드릴 선지는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수특 정답과 해설 11p 5번의 2번선지 해설 발췌

‘뜻이 있는 곳이 바로 사물’ 이라는 말을 강조한 사상가는 왕양명이다. 여기서 ‘뜻’은 의식,
의념, 의향을 가리키고, ‘뜻이 있는 곳’ 이란 의식의 대상을 가리키며, 사물이란 인간의 각종
행위와 활동 따위를 말한다. 이 말은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 는 왕양명의 주장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저의 부족한 해석이지만 이해를 위해 조금 덧붙여보자면,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라는 것은 양명학의 치지의 개념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명학은 마음속의 양지를 극진히 사물에 이루는 것을 치지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뜻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문의 ‘마음이 어버이에게 드러난 것이 효이고 임금에게 드러난 것이 충이고...’

이 부분에서 마음은 양지를 말하는 것이고, 효와 충은 뜻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에 좋은 설명이 있어서 덧붙이겠습니다.

양명학은 심외무리, 심외무물의 입장으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명학은 물(物)을 마음(뜻)이 가있는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음 안의 이치(양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곳에 물(物)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신다면 그걸로 놔두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선지도 EBS에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주시면 될 선지입니다.

8. ③

답은 소크라테스, 율은 플라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오답설명 ⑤ 주지주의는 악을 선으로 잘못 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9. ②

답은 홉스, 율은 마르크스이다.

근대 사상가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오답설명 ③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통한 절대적 평등을 추구한다.

⑤ 마르크스는 국가를 필요악이 아닌 소멸해야할 대상으로 본다.

10. ②

답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의리합일은 목자의 주장이다.

11. ③

롤스에 의하면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12. ④

답은 스토아학과, 율은 에피쿠로스이다.

13. ②

이황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설명 ㉠ 이황은 이(理)를 무형유위로 본다.

㉡ 이이의 입장이다.

14. ④

갑은 스피노자, 을은 데카르트이다.

④ 소피스트의 입장이다.

오답설명 ③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주장하며 정신과 물질을 둘로 나누었다.

(수능 완성에 있는 선지. 참고로 라이프니츠는 유일실체론, 스피노자는 단일실체론을 주장함. 근대의 세 사상가는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정립했다.)

15. ①

하버마스에 대한 설명이다.

16. ⑤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설명 ② 악을 좋아하는 기호는 없다. (기출에서 유명했던 함정 선지)

17. ⑤

갑은 불교, 을은 쇼펜하우어이다.

쇼펜하우어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반에 이르러 해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기출에 있음)

오답설명 ②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18. ②

이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이는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19. ④

갑은 하이데거, 을은 키르케고르, 병은 사르트르이다.

(나)의 키르케고르 제시문은 기출에 있는 제시문임.

오답설명 ②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20. ⑤

갑은 수정자본주의, 을은 민주사회주의이다.

오답설명 ② 수정자본주의는 자원을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③ 민주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부정한다.

④ 민주사회주의는 기본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므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